

#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한국, 중국, 일본의 16~19세기 복식을 중심으로 -

김지현\* · 간호섭\*\*

장안대학 스타일리스트학과 겸임교수\* · 홍익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ying Traditional Patterns in Northeastern Asia

- Focusing on the Costum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16<sup>th</sup>-19<sup>th</sup> Centuries -

Ji-Hyun Kim\* · Ho-Sup Kan\*\*

Affiliated Professor, Dept. of Stylist, Jang-an College\*

Professor,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08. 9. 25, 심사(수정)일: 2009. 8. 17, 게재확정일: 2009. 9. 10)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reate a new costume design suitable for publicizing our traditional patterns in the world by using the traditional patterns of Northeast Asia reg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na is characterized by a strictly fixed configuration and a realistic description, Japan a simplistic modality and an abstract-geometrical pattern, and Korea a eclectic type, whole-pattern, and part-pattern. This study aimed to make the pattern by using harmoniously these characters. Second, Korea, China, and Japan have many similarities concerning a symbolism and a type of pattern. In the modern fashion, they often use dragon patterns, various flower patterns like peony, plum blossom, or mum, and geometrical patterns. This study focused on expressing patterns which contain the ornamental symbolism of Oriental Look, aside from an existing symbolism, and show a traditional sentiment of Northeast Asia. The method for expressing traditional patterns usually included weaving, dyeing, embroidery, or gold foil. Although these methods have been used in all the three nations, even rubbed metal foil and patchwork have been widely used in Japan.

Key words: Northeast Asia(동북아시아), traditional patterns(전통문양), forming(형태성), symbolism(상징성)

## I. 서론

현대사회는 발전된 산업사회와 함께 다양한 마스크의 발달로 국제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에 생태학적 위기의식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시 추구하고 이국취향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서양문화 중심의 세계관에 싫증을 느낀 현대인들은 타 문화권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하게 되었고, 산업사회가 빚어낸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동양적 세계관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민족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패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각국의 디자이너들은 국제무대에 자국의 미를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통 문양을 이용하여 나아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양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복식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보다 정확한 삼국의 전통 문양을 고찰하고, 비교, 분류하기 위하여 16세기말~19세기(조선후기, 청나라, 에도시대)에 복식에 나타난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 시기는 삼국의 전통복식의 근간이 이루어진 시기로 사회체제 및 복식 체계의 변화로 현재 삼국의 전통복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시대에 비해 비교적 많은 유물이 보존되어 있어 여러 역사적 문헌자료들과 관련서적, 연구논문, 인터넷을 활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주로 사용된 문양들은 해당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왔던 것들이 많으나 특정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요소와 종교관의 변화에 맞게 변천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이전부터 전래되어 오던 불교 미술문화가 유교사상으로 교체되면서 산수무늬를 중심으로 사군자, 세한삼우, 십장생, 사령 등 여러 가지 길상도에 의한 해학적인 문양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청나라의 경우 만주족이 세운 중국의 마지

막 왕조로서 만주족과 한족의 문화가 잠정적으로 공존하여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삼국의 전통문양의 종류와 형태성, 상징성, 표현성을 각 나라마다 살펴본 후,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통문양을 이용한 디자인을 각 특성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5벌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 복식디자인을 제작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동북아시아지역의 지형적·사회적 특성

아시아(Asia)란 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들 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 '아수(asu:동쪽)이란 아시리아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대의 동방, 즉 오리엔트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우랄산맥과 카스피해에서 동쪽으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와 동부의 전 대륙을 포괄한다.<sup>1)</sup>

고대문명의 발생지이면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도교와 같은 종교와 사상의 발생지이기도 한 아시아지역은 각각의 독특한 기후, 자연적 환경과 다양한 민족 간의 충돌과 교류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 다양하고도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거대한 아시아지역은 지리와 자연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에 의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동북아시아는 중국 본토의 서쪽을 지나 베트남 국경 근처에 이르는 지역으로 유교문화권 또는 젓가락 문화권으로도 불리는 곳이며, 중국문화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도 고유한 문화와 독자적인 언어를 유지해 온 지역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의 하나로 주요 민족으로는 약 10억의 한족(漢族), 약 1억의 일본민족 및 약 6,000만의 한민족(韓民族)이 있다. 공통적으로 벼농사중심의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충(忠), 효(孝)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타난다. 대표적

인 국가로는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점 외에도, 한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삼국 간에는 경제 및 문화교류가 한자를 매개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에서 형성된 도교와 유교, 중국을 통해 전파된 불교의 수용 등은 다른 문화권보다 비교적 우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른 아시아 문화권에 비하여 지속적인 통일 국가를 유지해 왔으므로, 민족과 국가에 관한 개념이 뚜렷한 편이다. 또한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고는 하나, 각자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어서 각각의 독특함을 유지해 왔다.<sup>2)</sup>

### Ⅲ. 한, 중, 일의 복식에 나타난 전통문양 고찰

#### 1. 한, 중, 일의 전통문양의 종류와 상징성 및 표현방법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된 동물문양은 주로 용, 봉황, 거북, 기린, 학, 호랑이, 박쥐, 나비 등이며, 식물문양은 모란, 당초, 연꽃, 사군자, 포도, 호로박, 석류, 소나무 등으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일본은 한국, 중국과 다르게 특수한 공상의 동물문양 맥(蟒)과 남천(南天), 가라히가 등과 식물문양에 계문, 등나무, 벚꽃 등이 있다. 또한 기하학적문양에서 마(麻)의 엽문(葉紋), 귀갑문, 격자무늬, 청해파문(靑海波紋), 가스리 등이 복식에 사용되었으며, 부채, 엽전, 수레, 어망, 휘장, 책 등 생활도구와 자연풍경을 그대로 한 폭의 그림처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 2. 한, 중, 일의 전통문양의 특성 비교, 분석

##### 1) 형태성

한국 전통문양은 소박한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교적 이념이 담겨져있는 장수, 부귀영화, 다남, 다복 등의 길상의 의미와 복락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문양들로 표현되어 있다. 문양의 형태는 크게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으로 분

류<sup>3)</sup>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양은 공상적이거나 자연에서 도출된 것이나 문양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예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이 섬세하고 사실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문양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 도식화하여 평면적으로 표현하였다.

한국 전통문양의 형태는 극히 사실적이지 않고 적당한 비례와 균형을 맞추어 어느 정도 간략화된 형태나, 양식화된 형태 그리고 추상화된 형태로 조화로운 중시하였다. 또한 문양의 회화적 표현보다는 단순화되거나 체계화된 문양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중국 전통문양의 경우, 매우 사실적인 형태와 세밀한 디테일에 주요문양의 좌우대칭, 일정한 형식과 정형화된 배치를 통해 균형미를 중요시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을 위하여 문양의 크기를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복식형태의 단순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양의 사용이 특징이다. 특히 일본 직물에 표현된 문양은 사실적 음영까지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사실적 표현 이상의 양식화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문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하학적 문양의 사용과 함께 일본만의 독특한 문양 구성방식에 있어 독자성을 띠고 있다. 일본 전통 복식에 사용된 문양의 표현방식은 자연문양과 동물문양 등을 사실적으로 그대로의 모습을 시각화시키거나, 원래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양식적으로 또는 기하학적으로 연출하였다.

##### 2) 상징성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동일하게 용과 봉황은 임금이나 군왕 등의 위엄과 존엄을 상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길상적 의미의 문양으로 봉황, 학, 모란, 파문 등과 수, 복, 희, 만 등의 길상어문이 사용되었고, 장수의 의미로는 학, 박쥐, 나비, 거북이 등의 동물문양과 소나무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밖에 종교적 의미가 담긴 문양으로는 연꽃과 당초, 호로박과 태극문 등이 있다.

중국은 봉황, 박쥐, 물고기, 당초, 모란, 연꽃, 포도, 난초, 수, 복, 녹, 회, 부귀, 강녕, 수호덕, 노종명 등의 길상어문이 길상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장수와 자손 번창의 의미로 두루미(학), 기린, 나비, 대나무, 새, 국화, 구름문 등이 사용되었다.

일본에서 사용된 길상의 문양으로는 학, 맥(縹)과 남천(南天), 거북, 소나무, 대나무, 매화, 당초문과 문자문 등을 사용하여 길조의 의미를 나타내었고, 장수와 자손 번창의 의미로는 학과 당초, 소나무 등이 사용되었다. 종교적 의미로는 가라히가, 당초문 등이 사용되었고, 특히 가문의 상징으로 은행, 매화, 국화, 계문, 등나무 등이 사용되었다. 모든 문자에 길상적 의미와 염원성이 짙은 한국과 중국의 문자문과는 다르게 일본의 문자문은 길상적인 의미 이외에도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 없이 단지 장식적인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생활도구와 자연풍경등이 그대로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 3) 표현성

복식에 나타난 문양은 표현기법에 따라 직조문, 자수문, 금박문, 그리고 염색을 통한 문양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이를 기본으로 문양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같은 표현방법 이외에 조각의 천을 봉합하는 방법을 통한 패치워크를 이용해 문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조각보와 유사한 방법이지만 하나 일본은 복식에도 이용한 것으로 보다 화려하고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직조문에서 견직물을 통한 문양표현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복잡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무명의 면직물이나 모시, 삼베 등의 마직물에는 문양을 넣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일본은 면직물에서 가스리가 발달하여 십(十), 정자(正子), 귀갑(龜甲) 등의 기하학 문양에서부터 자연의 풍물 등을 모방한 가스리 등 다양하게 문양을 표현하였다.

염색에 의한 문양표현은 한국과 중국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색으로 옷감 전체에 표현하였으며, 일본은 다양한 일본전통염이 발달하여 고소데의 문양 표현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여기에 자수(刺繡), 접박이 더해져 한층 독특하게 발전하여 채색의 인물, 꽃, 새, 산수 등의 문양을 선명하게 염색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자수에서 한국은 신분과 계급에 차이를 두어 문양의 종류와 색상 등을 달리 표현하였으며 유교적인 염원성이 강하게 담긴 문양을 주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라 문양의 종류와 색상을 달리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양의 표현방법에 자수를 이용하며, 삼국 중 가장 다양한 자수법과 색채를 나타내었다. 특히 금사나 은사를 이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신분과 계급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자유로워 자수와 접박, 훌치기염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성이 두드러지게 발달하였으며 지극히 회화적이어서 한쪽의 그림을 보는듯한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금직, 금박, 금수로 직물에 장식하여 미적, 장식적 욕구를 충족했으며,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별되어 문양이 사용되었다. 일본은 금박과 함께 은박도 함께 사용하여 접박이라 했으며 염색, 자수와 병용하여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문양표현에 있어서 한국은 주로

<표 1> 한국·중국·일본의 전통문양의 특성

분류	특성
형태성	· 한국 - 양식화와 추상화의 조화로움 중시 · 중국 - 사실적인 형태와 좌우대칭, 형식과 정형화된 배치를 통한 균형미 중시 · 일본 - 문양의 양식화, 기하학적 연출
상징성	· 왕권 및 권위, 길상, 장수, 자손번창 등의 상징성 내포 · 일본의 경우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문양(문자문, 부채, 수레 등)의 사용
표현성	· 직조, 염색, 자수, 금박 등을 주로 사용 · 한국과 중국은 주로 직조와, 자수, 금박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은 특히 금, 은사를 이용한 자수를 많이 사용. · 일본은 다양한 염색법을 사용하였으며, 접박과 패치워크 등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문양 표현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은은하며,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문양을 표현한 반면, 중국은 표현 방법에서는 한국과 유사하였으나, 금사와 은사를 많이 사용하여 화려하고 과장되게 표현하였고, 일본은 직조를 기본으로 염색과 자수, 자수와 접박, 패치워크 등을 병용하여 문양을 보다 다채롭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표 1〉은 한국·중국·일본의 전통문양을 형태성, 상징성, 표현성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특성

##### 1. 형태성

현대패션에서의 전통문양은 사물을 양식화하여 배

우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사실적인 형태를 중시하여 세밀하게 사용하여 디테일한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그림 1〉<sup>4)</sup>은 MIUMIU의 06/07FW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양식화된 문양 위에 회화적 이미지의 구름 문양을 프린트하여 독특하면서도 동양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림 2〉<sup>5)</sup>은 JOHN GALLIANO의 05S/S 작품으로 간소화된 포도 문양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현대 패션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양이 들어간 소재를 사용하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문양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문양의 크기 또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주로 중국풍의 스타일 표현에는 큰 문양을 세부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문양을 세밀하게 나타내주었다.

〈그림 3〉<sup>6)</sup>은 KENZO의 06/07 FW 작품으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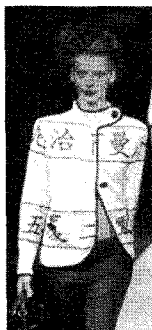
〈그림 1〉 MIUMIU, 06/07FW, MILAN



〈그림 2〉 JOHN GALLIANO, 05S/S, PARIS



〈그림 3〉 CHRISTIAN LACROIX, 05/06F/W, Haute Couture, PARIS



〈그림 4〉 GIORGIO ARMANI, 05 S/S, MILAN



〈그림 5〉 GIORGIO ARMANI, 05 S/S, M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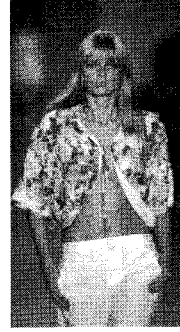
〈그림 6〉 KENZO, 06/07 FW, PARIS



〈그림 7〉 BLUEMARINE, 03 S/S, M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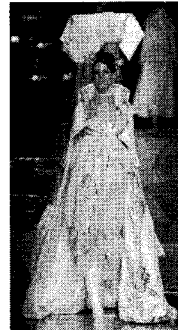
〈그림 8〉 JUST CAVALLI, 06/07 F/W, MILAN



〈그림 9〉 VIVIENNE TAM, 04S/S, NEW YORK



〈그림 10〉 KENZO, 06/07 FW, PARIS



〈그림 11〉 CHRISTIAN DIOR, 05 S/S, PARIS

본풍 스타일의 양식화된 크고 작은 꽃문양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림 4, 5, 6〉<sup>7)</sup>은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문양의 느낌을 살려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sup>8)</sup>은 BLUEMARINE의 03 S/S 작품으로 한국적인 느낌의 전통 꽃문을 자수로 표현하였다. 그 밖에도 JUST CAVALLI의 06/07 F/W 작품 〈그림 8〉<sup>9)</sup>은 일본의 기모노풍의 블라우스에 용의 비늘의 문양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VIVIENNE TAM은 04S/S〈그림 9〉<sup>10)</sup>에서 매우 정교하게 프린팅 된 국화문양의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 2. 상징성

현대 패션에서의 전통문양은 기존의 상징성을 내포하지 않으며, 장식성과 오리엔탈 스타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림 10〉<sup>11)</sup>은 KENZO의 06/07 FW 작품으로 중국의 민속복 스타일에 자수를 이용하여 화려한 모란 꽃문양을 넣어 중국풍의 에스닉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림 11〉<sup>12)</sup>은 CHRISTIAN DIOR의 05S/S 컬렉션에 선보여진 것으로 변형되어진 중국풍의 드레스와 코트에 은사를 이용한 자수 기법과 크고 디테일한 꽃 이미지를 사용하여 청대 여성복식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된 〈그림 12〉<sup>13)</sup>는 VIVIENNE TAM의 04S/S 컬렉션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컬러 톤과 함께 티셔츠에 들어간 용문양만으로도 동양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13〉<sup>14)</sup>은 ALEXANDER MCQUEEN의 05 S/S 작품으로 기모노풍 의상의 양쪽 소매에서부터 가슴 선으로 올라오는 매화문양을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의 일본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14〉<sup>15)</sup>는 이상봉의 04 S/S 작품으로 한국적



<그림 12> VIVIENNE TAM,  
04 S/S, NEW YORK



<그림 13> ALEXANDER MCQUEEN,  
05 S/S, PARIS



<그림 14> LEE SANG BONG,  
04 S/S, PARIS



<그림 15> ALBERTA FERRETTI,  
05 S/S, MILAN



<그림 16> VIVIENNE TAM,  
07 S/S, NEW YORK



<그림 17> CACHAREL,  
05 S/S, PARIS

인 자수 디테일과 문양을 서양 복식과 믹스앤 매치 하여 한국 전통문양의 이미지와 글래머러스한 여성미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 3. 표현성

기존 전통문양의 표현기법뿐만 아니라 현대적 이미지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직조, 자수, 금박, 은박, 접박, 염색, 프린트, 패치워크, 어플리케, 스팽글, 문신 등의 기법이며,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다채로운 색감과 표현기법으로 표현되었다.

ALBERTA FERRETTI<그림 15><sup>16)</sup>와 VIVIENNE TAM<그림 16><sup>17)</sup>, CACHAREL<그림 17><sup>18)</sup>은 05 S/S에서 광택소재의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에 꽃문양이 들어간 스커트와 원피스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모두 문양을 넣어 제작한 것으로 특히 CACHAREL의

경우 문양의 주변 형태를 은사로 표현하여 더욱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빛의 반사에 따른 은사의 반짝임으로 소재에 엠보싱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림 18, 19><sup>19)</sup>은 BLUEGIRL의 06/07 FW 작품으로 의상에 전체적으로 금사와 필사를 이용해 직조하여 문양의 아름다움과 함께 화려한 디테일을 구사하였다. 또한 BLUEGIRL은 같은 시즌 모란문양과 용 문양, 잠자리문양 등을 이용하여 하늘거리는 시폰 소재에 조화롭게 배치해서 프린팅 함으로서 로맨틱하면서도 섹시한 원피스 룩을 선보였다.

05/06FW에서 KENZO는 일본풍의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의 문양을 이용하여 주요 디테일부분에만 자수처리를 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표현하였으며<그림 20><sup>20)</sup>, GUCCI에서는 같은 시즌 매니시룩의 강한 코트에 당초와 꽃문양을 이용하여 한 쪽에만 비대칭적으로 자수문양을 넣어 강한



<그림 18> BLUEGIRL, 06/07 FW, MILAN



<그림 19> BLUEGIRL, 06/07 FW, MILAN



<그림 20> KENZO,  
05/06 FW,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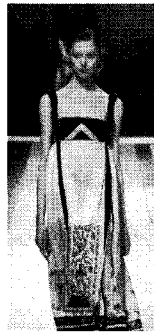
<그림 21> GUCCI,  
05/06 FW, MILAN



<그림 22> VIVIENNE TAM,  
07 S/S, NEW YORK



<그림 23> CHRISTIAN LACROIX,  
06 S/S, PARIS



<그림 24> KENZO,  
06/07 FW, PARIS



<그림 25> DOLECE&GABBANA,  
05 S/S, MILAN

여성의 이미지를 한층 높였다<그림 21><sup>21)</sup>. <그림 22><sup>22)</sup>는 VIVIENNE TAM의 07S/S 작품으로 전통중국 자수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미니멀한 원피스에 화사함과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그림 23><sup>23)</sup>은 CHRISTIAN LACROIX의 06S/S

컬렉션 작품으로 금박과 접박을 이용하여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스타일의 모란 문과 꽃문을 현대디자인에 표현하였다. KENZO는 06/07FW에서 원피스의 치마단 부분에 블루 톤의 정밀한 금박을 표현하였고 <그림 24><sup>24)</sup>, DOLECE & GABBANA는 05S/S에





<그림 26> KENZO,  
05/06 FW, PARIS



<그림 27> KENZO,  
06/07 FW, PARIS



<그림 28> KENZO,  
07 S/S, PARIS



<그림 29> ALEXANDER MCQUEEN,  
05 S/S, PARIS



<그림 30> JIL SANDER,  
04 S/S, MILAN



<그림 31> VIVIENNE TAM,  
04 S/S, NEW YORK

서 상의 블라우스의 가슴라인과 소매라인에 은박의 꽃문양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단아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그림 25><sup>25)</sup>

KENZO는 05/06FW 컬렉션에서 손뜨개를 이용한 니팅코트에 원색의 화사한 느낌의 컬러들을 이용하여 전통문양의 고정관념을 깨고 소녀스럽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06/07FW에서는 니트 제작 시 기계문양을 넣어 자수에서 얻어지는 명암법을 표현,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린 여성스럽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하였다.<그림 26, 27><sup>26)</sup>

<그림 28><sup>27)</sup>은 KENZO의 07S/S 컬렉션 작품으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이미지를 코트에 프린팅하여 단아한 동양의미를 표현하였다. 포인트 컬러로 사용된 먹물과 섞인 듯이 탁한 옐로우 컬러는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문양에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의 05S/S 작품인 <그림 29><sup>28)</sup>는 의상에 직접적으로 표현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어깨와 소매에 강한 컬러를 이용하여 용문양을 바디 페인팅기법과 토시에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헤어 장식으로도 금장식의 소나무 문양을 표현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림 30><sup>29)</sup>은 JIL SANDER의 04S/S 작품으로 인동담초문을 얇은 레이스지에 번 아웃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VIVIENNE TAM은 04S/S 작품에서 하늘거리는 쉬폰 소재에 수목담채화의 이미지를 프린팅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그림 31><sup>30)</sup>

## V. 작품제작

### 1. 작품의도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국제화,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등장, 동양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른 세계 패션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동물, 식물, 기하학적 문양을 모티프로 하여 문양의 전통적인 표현방법과 새로운 방법들을 접목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과 연결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데 그 초점을 둔다.

형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문양이 들어간 것과 장식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 문양, 사실적 형태와 추상적 형태를 고루 사용하여 한, 중, 일의 형태적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평면적 형태보다는 한국 문양의 형태성에서는 드물었던 입체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기법에 있어서는 자수, 누빔, 패치워크 등 실생활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기법을 다양하게 배합하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양 표현방법으로 특징적인 금박, 은박, 자수기법, 아플리케, 비딩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질감의 이미지와 음영의 효과를 살렸다.

소재에 있어서는 가죽, 인조가죽, 공단, 쉬폰, 모직, 니트, 모피 등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주로 블랙, 화

이트, 레드, 브라운을 중심으로 블루, 카키, 핑크, 베이지 등의 컬러를 문양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여 장식적인 느낌을 더해주었다.

아이템은 블라우스, 팬츠, 재킷, 스커트, 원피스 드레스, 하프 코트, 볼레로 등 현대적인 디자인의 다양한 아이템을 <표 2>와 같이 제작하였다.

### 2. 작품해설 및 실물제작

#### 1) 작품

- ◎ 아이템 : 하프 코트
- ◎ 소 재 : 스웨이드, 데님, 공단, 인조가죽
- ◎ 컬러 : 베이지, 블랙, 딥 블루
- ◎ 기 법 : 누빔, 비딩, 아플리케

본 작품은 하프코트와 팬츠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왕권 및 권위의 상징이었던 용 문양을 응용하여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주로 왕의 흉배나 보로 사용되었던 용(龍) 문양을 테두리를 제외한 문양으로만 사용하여 보의 느낌을 없앴으며, 형상화된 형태의 용문으로 단순화하여 H라인의 심플한 하프 코트에 전체문양으로 들어간 초화문(草花紋)의 포인트 문양으로 강조된 느낌의 용 문양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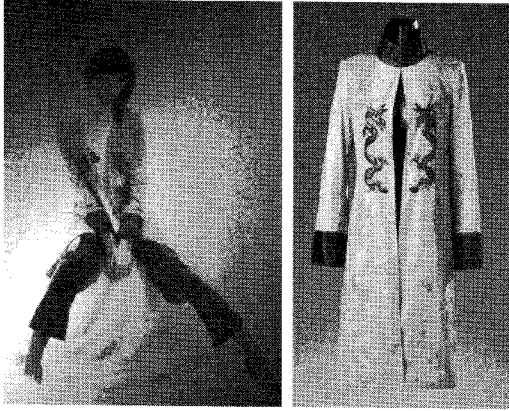
상의를 가슴부분에 표현된 용문은 용의 문양을 뜬 후, 비늘느낌을 줄 수 있는 인조가죽을 아플리케 기법으로 누빔 처리하여 문양의 주변에 비딩장식을 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재에 나타나있는 초화문양보다 포

<표 2> 작품계획표

	아이템	표현 / 특성	소재	기 법	색 상
I	하프코트, 팬츠	형태성, 상징성, 표현성	스웨이드, 데님, 공단, 인조가죽	누빔, 비딩, 아플리케	베이지, 블랙, 딥블루
II	재킷, 스커트	형태성, 표현성	인조가죽, 공단, 금사	아플리케, 자수(징금수), 비딩	블랙, 레드, 골드
III	볼레로, 블라우스, 팬츠	형태성, 표현성	니트, 공단, 면, 모직, 라쿤	손뜨개, 패치워크, 아플리케, 프린팅, 트리밍	브라운, 화이트, 블랙
IV	볼레로, 원피스 드레스	형태성, 상징성	쉬폰, 공단, 토끼털	은박	블랙
V	코트	형태성, 표현성	니트, 공단, 인조가죽, 토끼털	아플리케, 비딩	베이지,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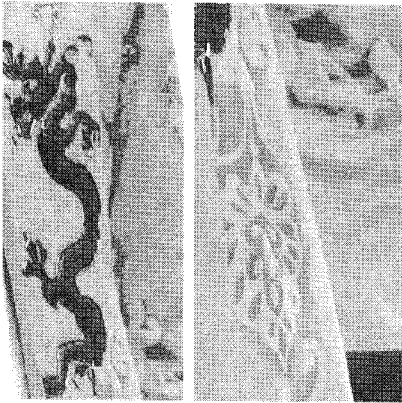
인트 문양으로 사용된 용 문양을 강조하기 위헤이다.

형태보다는 색깔과 문양에 전통적인 상징성을 가미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32> 작품 I  
- Image. 1

<그림 33> 작품 I  
- Image. 2



<그림 34, 35> 작품 I - Detail 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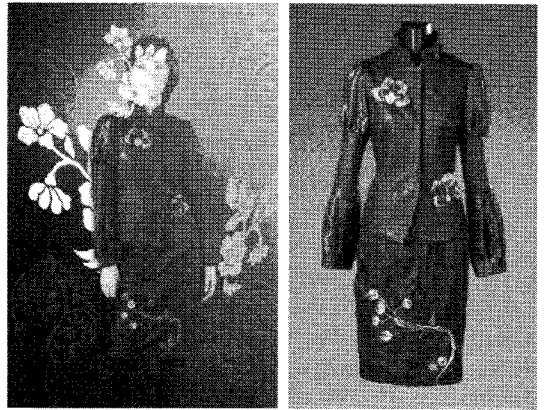
## 2) 작품 II

- ◎ 아이템 : 재킷, 스커트
- ◎ 소 재 : 인조가죽, 공단, 모피
- ◎ 컬러 : 블랙, 레드, 골드
- ◎ 기 법 : 아플리케, 누빔, 자수(징금수), 비딩

본 작품은 재킷의 모란문양과 스커트의 인동당초문양에 추상적 형태성과 입체감을 주기위해 금사를 꼬아 만든 끈으로 단조로우면서도 재질감을 느낄 수 있는 줄기와, 기하학문양(동심원문양)을 이용하여 줄기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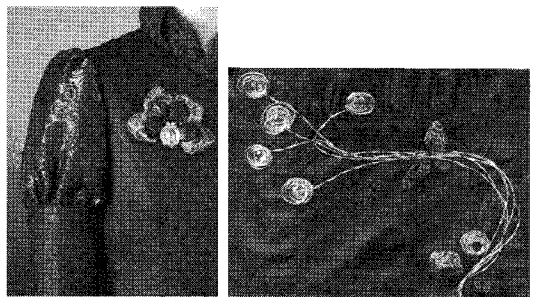
을 표현하였고, 서로 다른 천을 이용하여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 아플리케기법과 자수(징금수)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허리라인이 살짝 강조되어 힙라인에서 항아리 모양으로 부풀어지는 벌룬 스타일을 활용하였으며, 재킷의 칼라 부분에 셔링을 잡고, 어깨 퍼프와 소매퍼프에 금사가 들어간 자카드 원단을 사용하여 블랙 컬러에서 오는 딱딱한 이미지를 여성스럽고 고급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재킷의 소매부분과 문양의 형태에 누빔 처리하여 양감의 효과를 주었다.



<그림 36> 작품 II  
- Image. 1

<그림 37> 작품 II  
- Image. 2



<그림 38, 39> 작품 II - Detail Image 1, 2

## 3) 작품 III

- ◎ 아이템 : 니트 볼레로, 워머, 블라우스, 팬츠
- ◎ 소 재 : 니트, 공단, 면, 모직, 라쿤
- ◎ 컬러 : 브라운, 화이트, 블랙
- ◎ 기 법 : 손뜨개, 패치워크, 아플리케, 프린팅, 트리밍

블레로, 블라우스, 팬츠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다양한 꽃문양을 이용한 것으로 꽃문(花紋)은 현세의 복(福)과 평안을 상징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양중의 하나이다.

손뜨개 한 니트와 꽃문양이 프린팅 된 소재에 양식화된 꽃문양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아플리케 기법을 사용하여 라운딩 된 가슴선과 블라우스 앞 선에 입체적 형태성과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캐주얼한 느낌의 디자인에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블레로의 소매 끝에 라쿤으로 트리밍을 넣어주어 워머 와 블레로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디자인하였다.

◎ 기 법 : 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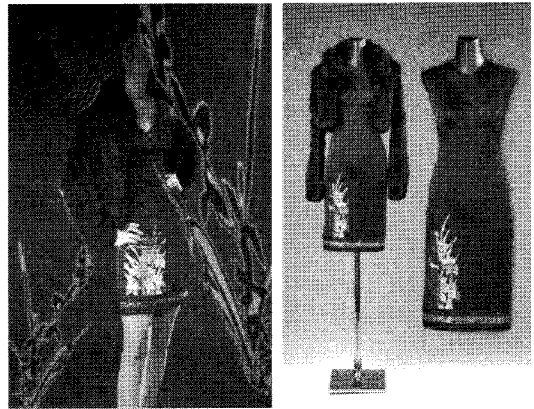
본 작품은 전체적인 컬러를 블랙으로 하여 표현한 것으로 전통표현 기법인 은박을 이용하여 치마 단에 사군자 중의 하나인 난초 문양을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한국의 문양구성미(美) 중 하나인 여백의미를 강조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사실적인 형태에 절충된 단순화된 형태성을 나타내었다.

하이 웨이스트의 여머지는 원피스드레스 스타일로 한쪽 가슴라인에는 양식화된 풀꽃문<sup>31)</sup>양이 번-아웃된 얇은 천을 이용해 난초문에서 풍겨지는 단아한 느낌과 함께 여성스러운 성숙된 아름다움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림 40> 작품 III  
- Image. 1

<그림 41> 작품 III  
- Image. 2



<그림 44> 작품 IV  
- 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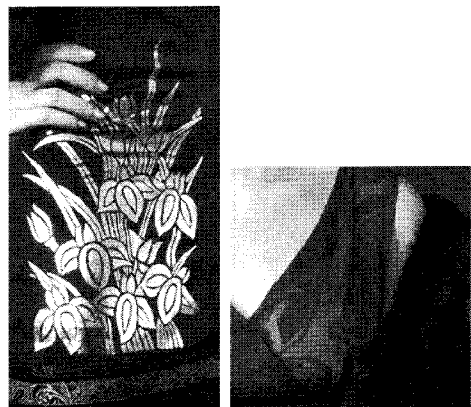
<그림 45> 작품 IV  
- Image. 2



<그림 42, 43> 작품 III - Detail Image 1, 2

4) 작품 IV

- ◎ 아이템 : 원피스드레스, 모피 블레로
- ◎ 소 재 : 쉬폰, 공단, 토끼털
- ◎ 컬러 : 블랙



<그림 46, 47> 작품 IV - Detail Image 1, 2

5) 작품 V

- ◎ 아이템 : 코트
- ◎ 소재 : 니트, 인조 가죽, 폴리 인조 모피, 토끼털, 공단
- ◎ 컬러 : 베이지, 브라운, 블랙, 레드
- ◎ 기법 : 아플리케, 트림기법, 비딩

본 작품은 베이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한 코트로 폴리 인조 모피에 모란 문양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였고,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자인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벌룬 스타일의 롱 원피스형 코트이며 소매와 가슴부분에 인조가죽과 토끼털, 비즈를 사용하여 매화문양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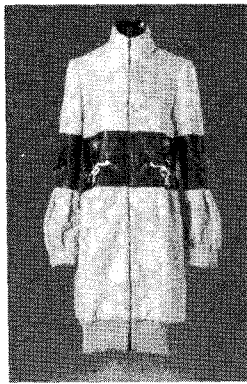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들어간 모란 문양은 중국풍의 사실적이고 세밀한 형태로 소매와 가슴부분의 추상화된 매화문양과 서로 절충적인 형태성을 보이도록 하였다. 모란문은 단색의 컬러에 프레스로 눌러 문양을 표현한 것에 비해 매화문은 다양한 컬러와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매화문의 꽃잎 표현은 다양한 컬러의 토끼털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전체 색감에 발랄함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꽃잎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각 꽃잎마다 입체화된 형태로 만들어 양피를 이용하여 매화나무 줄기를 표현하고 꽃잎과 꽃 봉우리의 느낌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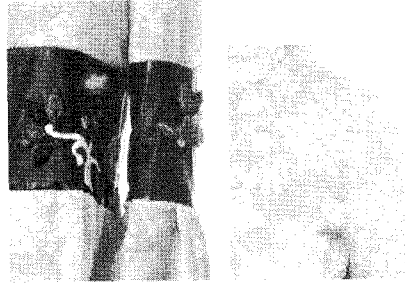
밑단과 칼라부분에 니트 소재를 매치하여 색감의 발랄함과 함께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그림 48〉 작품 V  
- Image. 1



〈그림 49〉 작품 V  
- Image. 2



〈그림 50, 51〉 작품 V - Detail Image 1, 2

VI. 결론

최근에 우리 패션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전통적인 모티브를 응용하여 많은 의상들이 제작되고 있다. 이에 전통문양은 각국의 문화 이미지로서 대표성을 지녔다. 이미지는 주로 모습, 모양, 생김새와 같은 시각적 자극에 발생하는 형태들이고 이는 소구력을 지닌 강력한 시각전달 매체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필자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한국, 중국, 일본의 16세기~19세기의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삼국의 전통문양의 종류의 다양성과, 형태성, 상징성, 표현성을 고찰한 후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양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복식디자인 창출의 가능성을 시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일 삼국의 전통문양은 비슷한 사회적, 종교적 배경으로 인하여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 전통문양을 형태성, 상징성, 표현성으로 나누어 본 결과 정형화된 배치와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되거나 반대로 문양의 양식화로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형태성을 나타내었으며, 왕권 및 권위, 길사, 장수, 자손번창 등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양들을 사용하여 직조나 염색, 자수, 금박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다양한 문양의 발달과 함께 상징성이 없는 부채나 수레, 장구 등의 사물을 문양으로 사용하거나, 패치워크와 같은 독특한 표현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전통문양을 형태성, 상징성, 표현성으로 분석하였다. 형태성은 사물을 양식화하여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사실적인 형태를 중시하여 세밀하게 사용하고 디테일한 장식적인 효과를 주어 표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문양과 전체적으로 문양이 들어간 것과 장식적인 효과를 위한 부분 문양 등을 고루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상징성에서는 문양 고유의 상징정보보다는 오리엔탈 이미지를 상징하는 역할로 문양의 원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이미지화하기도 하였다. 표현성에서는 프린팅, 아플리케, 패치워크, 자수, 문신 등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과 소재를 다양하게 접목시켜 표현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용(龍)문과 꽃문(모란(牡丹), 매화(梅), 풀꽃(草花), 인동당초(忍冬唐草), 난(蘭), 보상화(寶相華)), 기하학적 동심원 문양을 이용하여 5작품을 제작하였다. 전통문양의 형태성, 상징성, 표현성의 3가지 특성이 디자인에 투영될 수 있도록 문양의 형태성은 정형화된 배치, 사실적 묘사와 단순화된 문양의 양식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전체적으로 문양이 들어간 소재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 문양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양의 조합을 시도했으며, 문양의 입체감과 질감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전통문양 고유의 상징성은 사라졌으나 전통문양을 이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작품에 나타내주었으며, 표현성에서는 현대적인 소재에 자수, 금박(은박) 등의 동양적 표현기법과 패치워크, 스티치, 니팅, 비딩, 아플리케 등의 서양적 표현기법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접목시켜 동, 서양의 조화된 미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통문양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와 세계 패션계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의 디자인을 만들고자 다양한 의상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재조명해 보았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전통문양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문양을 응용하거나 테마로 사용할 경우 우리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전통문양을 이용한 디자인이 더욱 확대, 발전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1)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09.17,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05222>
- 2)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전통복식(Traditional Costumes of Asia)*, 교문사, pp. 4-5.
- 3) 장수경 (1994),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2(2), p. 288.
- 4)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w.com>
- 5)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6)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7) 자료검색일 2009.09.17, 자료출처 <http://www.ifp.co.kr>, *동아TV COLLECTION(2005S/S Paris & Milan)*, 9, 동아TV, p. 415,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8)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9)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10) 자료검색일 2009.09.17,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11) 자료검색일 2006.09.2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12) 자료검색일 2009.09.1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u4778/140038015154>
- 13) 자료검색일 2009.09.1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ddfjin/memo/10065710607>
- 14) *동아TV COLLECTION(2005S/S Paris & Milan)*, 9, 동아TV, p. 58.
- 15) 자료검색일 2009.09.17, 자료출처 <http://liesangbong.com/stills.php?s=04ss&sec=collections&p=2>
- 16)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17)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w.com>
- 18)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19) 자료검색일 2006.08.18,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w.com>
- 20)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w.com>

- wkorea.co.kr
- 21)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22) 자료검색일 2006.09.0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23) 자료검색일 2006.09.0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24) 자료검색일 2006.09.0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25)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26) 자료검색일 2006.09.0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27) 자료검색일 2006.09.0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28) 동아TV *COLLECTION(2005S/S Paris & Milan)*, 9, 동아TV, p. 58.
  - 29) 자료검색일 2006.09.0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30) 자료검색일 2006.09.0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kr>
  - 31) 풀꽃문(草花紋)은 풀과 꽃의 특징을 간결하게 처리한 것으로 길상적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백이 절제된 공간을 내포한 것으로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특징이 있다.